



우리나라 特許制度의 지난 1908年에서 1986年까지의

세계에서 特許制度가 처음으로 驅者가 되었고 그 顯著한 工業로 시작된 나라는 英國이다. 發達は 주로 特許制度和 그 合理的인 運用에 있었다. 이에따라 英國에서는 1624年 (우리나라 李朝 16代 仁祖大王 때)에 專賣條例가 制定되어 새로운 技術이 近代國家로서 成立됨과 同時의 發明者에게 特許狀을 주어 特許制度를 導入하여 오늘에 와서는 世界의 大部分의 國家가 特許制度를 갖게 되었다. 그후 英國은 産業革命의先 그러면 우리나라의 特許制度

(말총모자)이다.

日本의 예측에서 벗어나 軍政下에서 1946年 1月 22日 軍政法令第44號로 特許院이 設립되어 特許·實用新案·意匠·商標·著作權 등의 事務를 管掌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施行절차 등 관련 法規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保護願을 接受만 하여놓고 나중에 法規가 制定되기만을 기다리는 形편이었다.

이에 따라 1946年 10月 5日 軍政法令第91號로 12章 265條에 이르는 特許法이 制定 공포되고 特許局이 設립되었다. 當時의 特許法은 오늘의 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을 통합한 것으로서 同一法內에 3가지 特許 (發明特許·實用特許·美匠特許)를 함께 포용하였다.

그후 1949年 5月 23日 大統領令 第119號로 特許局職制가

舊韓末 時代

우리나라의 特許制度는 舊韓末 日本統監府하인 1908年 8月 12日 勅令 第196號로 韓國特許令·勅令제197號로 韓國意匠令·勅令제198號로 韓國商標令 등을 制定 공포하고 이를 1908年 8月 16日부터 施行하였다.

또 1908年 8月 12日 韓國特許令 등의 制定公布와 함께 勅令 第202號로 統監府特許局制度가 制定 公布되어 特許局設치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當時 漢城)에 特許局이 設치되기는 1909年 2月 10日이었다.

한편 최초의 우리나라의 特許出願은 1909年 11月 2日이며, 최초의 特許權者는 정인호氏

日本占領 時代

그러나 이때는 國力이 쇠퇴하여 日本統監府에 의하여 特許制度가 운영되었다. 또 그나마도 1910年 8月의 韓日合併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特許制度가 폐지되고 日本國勅令제335號가 制定公布되어 日本國의 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 및 商標法이 우리나라에서 實施되었다. 이와 함께 日本國勅令제336號와 337號가 制定공포되어 韓國特許令·實用新案令·意匠令·商標令 등이 폐지되고 特許局도 日本特許局에 흡수되었다.

解放後 時代

그후 1945年 해방과 더불어

發展史

過 추적

는 언제 制定되어 어떤 過程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가?

國際工業所有權研究所에서 發刊한 「尖端技術과 特許保護」 (姜寬코오롱技術研究所長·金允培辨理士·朴似龍辨理士 共著) 를 통해 우리나라 特許制度 發展史를 추적해 본다.

<編輯者 註>

公布施行되고 1949年 11月 28日 法律第71號로 商標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1958年 3月 11日 發明保護法이 제정 공포되어 發明保護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第3共和國 이후

1961年 12月 31日 舊法令정 리사업의 일환으로 舊特許法이 特許法·實用實案法·意匠法의 3個法으로 분리제정하고 종래의 特許權의 존속기간 17年을 12年으로 단축하였다.

한편 對外門戶開放등과 아울러 1968年 12月 5日 日本과 商標保護協定을 체결한 이래 1974年 1月 1日 韓日工業所有權 (特許와 實用新案)保護協約을 발효시키는 등 多數의 國家와 個別條約등을 체결하여 우리의 工業所有權門戶를 全世界에 開放하기 시작 하였다.

特許廳 時代

1977年 3月 드디어 特許局이 特許廳으로의 승격 확대개편 되었다. 이와 함께 特許廳의 審査·審判·管理기능을 現代化

하기 시작하였다. 1979年 3月 에는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에 加入하여 WIPO·UNDP 등과 協力하여 우리의 特許制度의 現代化計劃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파리協約에의 加入을 추진한 결과 1980年 5月 4日에 萬國工業所有權保護協約 (파리協約)에 加入하여 명실공히 工業所有權의 國際化를 이룩하였고, 1984年 9月 1日에는 特許協力條約(PCT)에 加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는 동안에 特許法등도 國際化추세에 따라 여러번 改正되었다. 특히 내년 7月の 物質特許등의 도입에 발맞추어 特許法의 대폭개정이 예상되고 있어 조만간 特許制度에 관한 最先進國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1년에 總出願件數가 7萬件이 넘는 工業所有權분야의 先進國으로의 발돋움을 하고 있다. <끝>

이달의 新規會員

本會 加入會員 날로 늘어

本會 加入會員이 날로 늘고있다. 8月에도 富美工業社와 三星코닝(株)가 새로 加入했다. 두 新規會員社의 면모를 紹介한다.

富美工業社

가방장식·신발비조·구멍쇠등의 製造·販賣業體인 富美工業社(대표 高榮)는 지난 75年 3月 10日에 創立된 有望 中小企業.

資本金 1억 8천만원에 從業員數는 40名으로 날로 發展하는 단계에 있다.

特許管理는 社長이 직접 하고있다.

연락처는 부산시 북구 삼락동 393-11.

전화(부산) 324-5001~3.

三星코닝(株)

CRT用 벌브유리 製造·販賣業體인 三星코닝(株)(대표 申勳澈)은 지난 73年 12月 10日에 創立된 大企業.

資本金 300억원에 從業員數는 1,900名에 이르고 있다.

特許管理는 技術管理팀(팀장 金명식) 7명에 의해 이루고 있으며, 特許 1건과 實用新案 1건을 登錄한바 있다.

연락처는 경기도 수원시 태안읍 신리 472.

전화(태안) 33-5588. <끝>